성남시의회 "미래 50년 설계 원년"

제279회 임시회 개회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2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 279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일정으로 27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45건을 심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설계해야하는 뜻깊은 해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새로운 성남 50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은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안극수 조정식·정용한·성해련·김보석 의원 등 총 5명이 나섰다.

안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라', 조 의원은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 정 의원은 '성남 힐튼호텔 관련 내용', 성 의원은 '허울뿐인 복지정책',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정연무 기자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
장애인식개선 지원 가시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당, 동두천1)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개최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이인규 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 회장,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입법전문위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정담회 때 도출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해 최종 조례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을 보았다"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도 성희롱 강사의 절반 정도 보수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업에 관한 각종 지원도 이 조례 제정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후 본 조례의 대표발의를 담당하게 될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에 근거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무원·학생·근로자·도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도록 돼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는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돼 운용 중에 있는데 도는 2018년 제정을 시도했다 무산되고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의 자격과 정의, 안 제5조에서 도지사의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교육 시 집합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했다.

김인창 기자

동두천시 통합 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이태원 참사 미리 막아야"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임현숙(민주당, 나선거구) 의원은 26일 열린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만 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에서 연중 개최되는 다중 밀집 행사는 30개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행사에 100명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으며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등 규모가 큰 경우에는 최대 2만5000명까지도 군중이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린다.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의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 예산 지원으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들은 그 관리 책임 부서가 모두 제각각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은 통합된 체계적 시스템 아래에서 효과가 발휘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이유로 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부서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 어떤 목표들보다도 우선하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시민 안전'임을 재강조하며 지난해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앞으로 동두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한성대 기자

의회 단신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기대

임지훈 인천시의회 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중인 27일 임지훈(민주, 부평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보호 등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중심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임상오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북부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지역에 당리당략 없어야"

임상오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됐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창 기자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근거 마련

이강구 인천시의원 대표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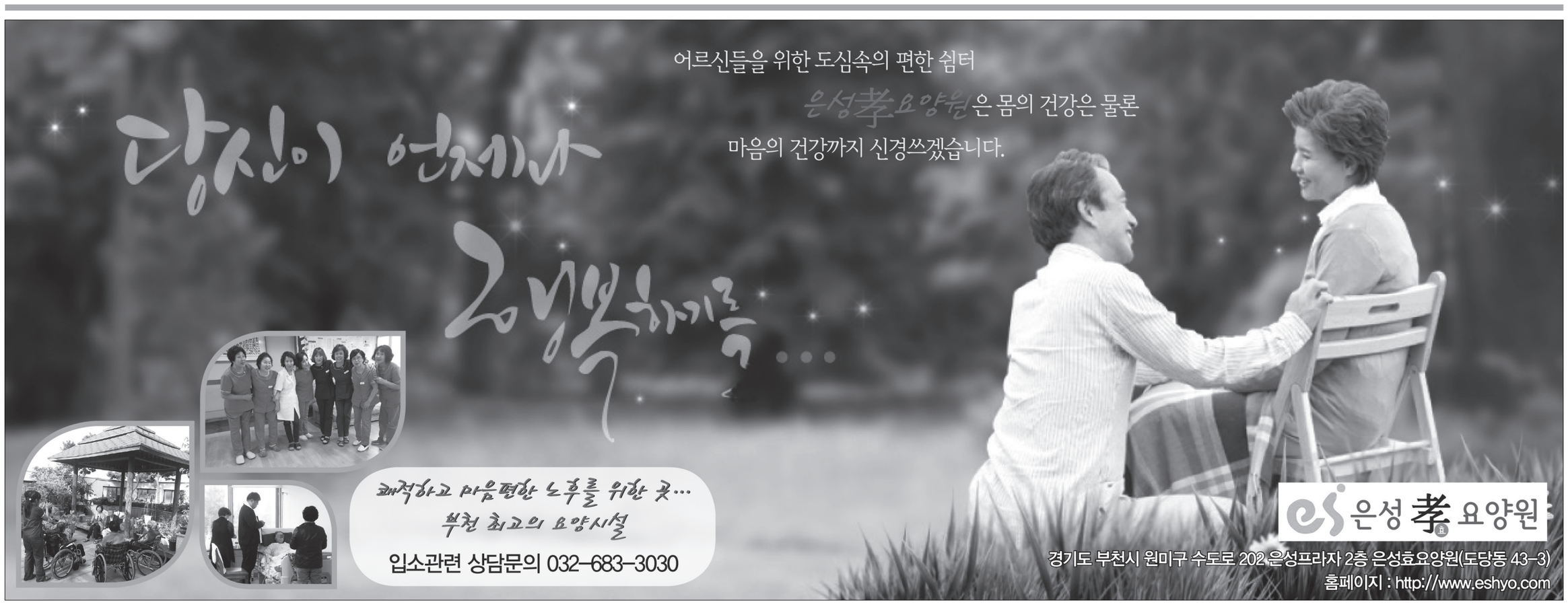
인천시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집합건물 건전관리 사업,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며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1327건에서 2021년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 혼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